

喪服에서의 상징성 연구

- 상복저고리를 중심으로 -

정 옥 임

조선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A Study on the Symbolism of Mourning Dress

- Focused on Mourning Dress -

Ok-Im Chung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 Education, Chosun University

(2003. 11. 28 투고)

ABSTRACT

The ceremonies were roughly categorized into four: coming of age, marriage, funeral and ancestral worship. Among them, the funeral was a representative example to show ancestral worship. As it symbolizes the worship to ancestors, its procedure was complicated and formalized. It was undoubtedly certain that formalized mourning dresses and complicated table setting for sacrificial services to ancestors were burdens.

Although what was symbolized by mourning dresses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wearers purposes, it was thought that no clothing had such unusual symbolism as mourning dress. When the composition of mourning dress was examined, it was shown that Taoism, family relation of Confucianism or symbolic clothing system of Shamanism were combined. Mourning dress first represented the Confucian idea of ancestral worship. For the composition of clothing in which a shamanistic element was inherent, forms of birds were used to guide the dead soul to the other world. In cutting out mourning dress, opposite concepts of Yin and Yang, and closure and openness were used to show a harmony between heaven and the earth. Male and female were represented through sewing techniques. The period of observing the mourning period depended on the degree of kinship. The degree to which the clothing was loose indicated the degree of sadness and kinship. Load blocks and tear pads indicated the degree of sadness. In considering the above indicators, family relation and filial piety to ancestors had a great effect on the form and details of mourning dress. Shamanistic elements as well as Confucian ones were inherent in mourning dress, which resulted in the combination of Taoism and Confucianism.

Key words : taoism(도교), confucianism(유교), shamanism(원시종교), the cosmos view(우주관),
symbolic clothing system(상징적 의상체계)

I. 緒 論

전통사회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유교의 권위가 매우 위축되고 유교적 생활양식의 변혁과 더불어 조상 숭배의 비중과 의미도 쇠퇴를 겪었다. 따라서 가족의식의 쇠퇴와 조상숭배의 위축에 따라 전통에 대한 의미도 희석되어 인간관계도 친족적인 것이 축소되고 사회적인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가치조차 거의 서양식으로 대체되면서 우리생활에 깊게 뿌리내린 의례들이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거의 잊혀져 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가 변화 발전한다고 해도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까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전통의 가치만큼은 이해되고 계승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儀禮는 크게 冠婚喪祭 네 가지를 말한다. 그 중 喪禮는 조상숭배의 대표적 儀禮라고 할 수 있다. 조상 숭배라는 상징성 때문에 의례절차 또한 복잡하고 형식화되어 陳設절차뿐 아니라 喪服 衣褶이 우리생활에 부담이 되는 의례였던 것도 사실이다. 의복이 착용목적에 따라 나타내고자하는 상징성이 다르다고 하지만 四禮의복 중 상복만큼 옷의 구성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성이 특이한 것도 없으리라고 본다. 그 동안 상복에 대한 선행연구는 상복의 조직과 구조에 대한 것으로 김두현¹⁾, 정명자²⁾, 최기복³⁾, 조우현⁴⁾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이들은 상복의 성립 배경이나 오복제도를 통해 친등질서, 상복 일습에 관한 것을 유교적 측면에서 고찰 연구한 것으로, 상복의 상징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에 부응하여 인간의 사고가 간결 단순지향성을 추구하면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거의 생활문화에 대한 가치조차 단절시키고자 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이상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상복에 내재된 상징성을 구성형태를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附帶持物을 제외한 전통상복 저고리에 한하며, 우리의 잊혀져 가는 전통의 정신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本 論

1. 衣服과 상징

상징은 인간본질의 심오한 표현이다. 상징은 모든 시대 모든 문명에 있어왔거니와 구석기 시대 동굴벽화에서 처음 나타난 이후 문명과 함께 발전해 왔다.

의복에서 기능을 기구적 기능과 표현적 기능⁶⁾으로 나누어볼 때 도구적 기능을 기후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보호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표현적 기능은 상징을 통한 무언의 언어로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체의 장식을 통해, 또는 의복의 附袋物을 통해, 피복재료나 의복의 용적, 構成素, 색채를 통해 계급과 사회적 지위, 능력을 표현했을 때 표현된 의미 즉 상징을 관찰자가 인지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대체로 文語 및 口語, 이미지 혹은 동작의 형태를 취한 기호에 의존한다.⁷⁾ 그러나 기호와 같이 실재에 대한 표상으로 그 뜻이 정확하도록 의도된 것이 있는가 하면 덜 명확하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심리적, 정신적인 세계와 관련된 측면의 상징적 표현이 있다. 오랜 문명에선 상징의 힘을 인식했고, 그 상징을 미술, 종교, 신화, 제의에 두루 사용했다.⁸⁾ 상징의 중요한 효능은 의문의 여지없이, 그것이 자신의 상태를 벗어나려는 모든 인간의 신비한 욕구의 구체화된 반응이라는 데에 있다.⁹⁾ 따라서 상징은 언어와 같은 의미를 지니며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또 다른 언어라 할 수 있다.

상징은 문자가 있기 전의 원시시대의 종교 신앙이라 할 수 있는 샤머니즘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샤먼들에 의해 상징된 부대물들은 어떤 능력을 가졌음을 나타내거나 이루고자하는 바램과 행함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징이나 상징물들은 사회가 발달하면서 인간들의 생활 속에서 멀어지거나 잔존되어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생활 속에 동화되어 버리거나 또는 다른 양상으로 전이되어 본래의 상징적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채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문화는 민족의 생활 조건,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 등에 의해서 문화적 요소가 배격되거나 疏遠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특히 애용되거나 보편화되는

것도 있다.¹⁰⁾ 의복에서 표현된 상징도 이러한 경우가 많다.

2. 상례의 유교적 영향

喪禮란 喪中에 행하는 모든 예절로 조상숭배사상이나 繼世思想, 그리고 가족공동체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교의 仁孝사상이 우리민족 고유의 사상과 잘 맞아떨어지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점차 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白虎通義¹¹⁾에 의하면 喪은 亡이라는 뜻이고 사람이 죽는 것을 喪이라 하는 것은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이라 했다.(喪者亡也 人死謂之喪 言其亡不可復得見也) 이 말은 유교의 死生觀, 來世觀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하겠다. 이 때문에 儒家에서 喪禮에 최상의 엄숙성, 극단의 哀痛에 繁文縟禮를 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조상숭배도 이에서 비롯된다. 조상은 죽음을 통해서 성립되며 나와 조상과의 관계는 법적 또는 공적으로 인정된 친자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¹²⁾

조상숭배의 기원에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대개는 死者와의 교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종교 신앙적 목적이 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고대인의 조상숭배는 繼世思想에 있었다. 계세사상이란 죽음을 無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死後에도 生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生死一如사상 때문에 시체보존의 사상이 강해서¹³⁾ 儀禮가 발달하고 喪葬의 제도가 복잡해진 것이다. 따라서 死者는 자손으로부터 숭배를 받고 자손은 사자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신앙에 의하여 喪禮의 절차가 형식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고려말에 들어온 <朱子家禮>이고 유교의 성리학이었다.

<주자가례>는 유교의 배경아래 조선시대 초기에 시행되기는 했지만 고려의 뿌리깊은 불교의식과 공존하다가 사회가 차츰 儒敎化되면서 성리학이 꽃을 피운 16~17세기 족보의 보급¹⁴⁾과 <四禮便覽>에 의해 儀禮는 일반인들에게까지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주자가례>란 南宋 효종 5년(1169)에 주희가 저술한 책으로 우리나라에는 고려말 충렬왕 12년(1226)에 安珦이 <주자전서>를 수입할 때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사례편람>은 조선 영조 때

李緯가 편저¹⁵⁾한 것을 1844년 헌종10년에 간행한 책인데 의례비교연구에 의하면 <주자가례>와 <사례편람>은 喪禮規範에서 내용상 차이가 없었다¹⁶⁾고 하였다.

정몽주의 건의에 의해 <주자가례>가 처음 도입되어¹⁷⁾ 조선시대 초기에 궁중에서 시행될 때는 3年喪의 원칙만을 세우고 國喪儀禮가 불교의식과 겸용되어 시행되던 것이 세종 이후에 喪祭의 예법은 文公家禮를 준수해야 하며 佛式에 따르는 것을 금한다¹⁸⁾는 내용으로 보아 불교의식은 이때부터 국상의례에서 분리되어 유학자들이 크게 득세한 중종 이후부터 喪制에 대한 예법이 철저하게 시행되어 유교의례화로 형식화되어 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孝를 기본으로 한 유교의 조상숭배가 가세하면서 절차가 더욱 격식화, 형식화되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이 관습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양반사회체제가 신흥상인들의 대두로 서민문화가 발흥되면서 영, 정조시대에 喪禮에 대한 의례가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습용되어 전승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대의 발달과 西學의 전래로 말미암아 縵禮라 할만큼 복잡하고 난잡한 주자가례의 조문은 그 효력을 잃고 주자가례에서 繁文縟禮에 해당되는 허례 허식적인 면을 제외하고 禮의 본질에 속하는 것만을 간소한 절차로 만들어¹⁹⁾ 1960년 1월 16일 법률 제 20호로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했다가 다시 1973년 3월 13일 법률 제2604호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간소화된 상례에서도 일부에서는 아직도 상복의 고유한 형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상복 짓기와 構成素로 본 상징-내외구별과 슬픔의 표시

의복의구성은 인체를 바탕으로 하여 구성된다. 아무리 기능적 목적이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인체의 형태를 고려하면서 디자인된다. 그런 다음 표현의 지를 담아낸다. 사람들은 이것을 상징성으로 인지한다. 상복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상복에는 상황을 알리는 표현 외에 어느 옷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많은 표현을 한벌의 옷에 함축시키고 있다.

상복은 참취라고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상복이

란 사람이 죽으면 입는 옷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상복은 상을 당했을 때 입는 옷이기는 하나 大小殮禮가 끝난 후에 입는 옷을 말한다.²⁰⁾ 대소림례란 절차상 殮襲이라고 하여 죽은 사람에게 壽衣를 입히고 나서 비로소 입게되는 옷이 상복이다. 뿐만 아니라 상복에는 五服제도라고 하여 死者에 대한 유복자의 親屬遠近과 尊卑, 신분에 따라 斬衰, 齊衰, 大功, 小功, 總麻등²¹⁾으로 나누어 服喪의 등급적 구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상복에서의 상징적 의미는 喪을 당했음을 알리는 것 외에도 또 다른 내재된 상징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복에서 표현하고 있는 민족성이나 감정, 무속적 우주관, 혈연적 친등관계를 상복의 구성적 특색을 통해 나타내고자했던 것이다. 따라서 男女의 구별은 持物인 대나무지팡이와 오동나무 또는 버드나무 지팡이로도 나타나지만 구성에서는 재봉법으로 표현했는데 <文公家禮本注>에서 衣縫向外, 裳縫向內라 하였는데 衾의 만은 오복의 어느 경우에도 모두 向外로 된 것이 특징이다.²²⁾ 시접의 끝을 푸서인 채로 두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상복 시접을 안으로 꺾었는데²³⁾이 바느질법은 내외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교의 남존여비 사상에서 본다면 시접을 겉으로 꺾어지도록 하는 것은 가부장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안으로 꺾는 어머니의 시접은 슬프나 감정을 가린다는 의미가 있었으리라고 본다. 또 바느질을 성글게 호아서 짓는 것은 부모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 경황없이 지은 옷이라는 뜻을 표현하고자 했음이라고 보이며 나아가서는 3년상을 치르고 나서 해체하여 재사용하기 쉽도록 하는 뜻도 포함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또한 상복에는 감정의 표현이 디테일로 나타나는데 슬픔을 의복의 색으로 표현하지 않고 상복의 앞, 뒷판에 슬픔을 무게와 양으로서 상징하고 있는데 이는 유교의 祖上에 대한 孝의 상징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슬픔이 너무 커서 등에 짐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상징하는 負板과 흐르는 눈물의 양이 많아서 닦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닦아야 할 정도라는 것을 상징하는 눈물받이가 그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복구성에서 바느질법은 내외 즉 남녀의

구별은 물론 슬픔의 무게와 양을 조상에 대한 효의 무게로 표현했던 것이다.

4. 喪服제에 표현된 상징-親等秩序

기본적으로 농업이 기본 산업이었던 전통적인 유교적 사회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서로 친화적이었다. 그래서 자연운행과의 순조로운 화합이 인간사회가 이룩해야할 과제였다. 서양의 고대나 중세의 자연관에서도 자연자체가 자기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유기체로서 그 나름의 고유한 권리가 인정되었던 것처럼²⁴⁾ 동양문화권에서도 자연은 늘 변화하는 생명적 유기체로서 이해되었다. 그래서 儒家에서는 일찍부터 자연과 인간의 가치론적 합일이 설파되었고, 또한 인위적인 그 무엇으로도 간섭할 수 없는 天道에 근거하는 일종의 자연법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무한변동의 존재원인으로서 그 안에 선형적으로 내재하는 이상적 질서, 즉 道에는 자연과 인륜도덕의 공동의 원천으로서 절대적인 권위가 부여되었다.²⁵⁾ 따라서 유교사회는 기본적 사회조직으로서 가족을 존중하고 있다. 국가도 가족의 확장이며 우주도 가족관계로서 이해되기도 한다.²⁶⁾ 이러한 가족의식의 기초는 사회구성을 유교적으로 특징지어 조상은 모든 후손의 정점으로 그 혈통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중심이 되고 있다.

가족의 확장을 우리는 친족이라고 한다. 유교사회에서 친족의 질서는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촌수에 따라 배열하는 親等秩序와 시조로부터 세대가 후손으로 이어지는 系譜秩序가 있다. 이 친등질서는 특히 상례 때 자신의 의례적 형식을 결정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친등질서에 따라 애도의 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친족 속에서도 치밀한 계층적 구성체계가 성립되며,²⁷⁾ 이것은 가족 속에서 결속의 정도를 결정하여 줌으로써 친족관계 사이에 통합과 분리를 확립시켜 준다.

친등질서에 의한 喪服규정에는 여섯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親親, 尊尊, 名分, 出入, 長幼, 從服이 그것이다. 첫째, 親親이란 혈연의 친소에 의한 것으로 服喪 輕重의 기본이 되고 둘째, 尊尊은 신분의 고하에 따라서 셋째, 명분이란 직계친속이 아니고 다만 명분

상의 관계를 말하며 넷째, 출입은 종족귀속에 의한 출가한 여자의 복상이고 다섯째, 長幼라 함은 연령에 따라 복상의 기준이 설정된 것이고 여섯째 從服은 간접관계인 服喪을 말한다.²⁸⁾ 이 원칙에 따라 상복례에서 친등질서에 따른 服制를 보면 부모는 最大最重으로 3년服喪을, 조부모는 1년服喪을, 증조부모는 5개월, 고조부모는 3개월服喪으로 규정²⁹⁾하였는데 여기서 服喪이란 삼가 예의를 갖추어야 할 기간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복제에는 상복을 짓는 방법, 베울의 거친 정도와 부수되는 부대물 까지 규정하고 있어 친소구분의 엄격성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親等에 따른 슬픔의 깊이정도를 복상 기간, 짓는 방법, 베울의 성긴 정도인 升數로 규정하여 새(升)가 적고 조악할수록 복상기간이 길었고 상복을 짓는 방법도 밀단을 깔끔히 처리하기 보다 풀어놓을 때가 앞선 친등관계를 나타낸 것이었다. 따라서 친등이 멀어질수록 새는 커지고 고운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새(升)란 한 폭에 포함된 울의 수를 나타내는 단위이며 한 새는 80울을 뜻한다.³⁰⁾ 새의 숫자는 클수록 곱고 가는 布를 말한다. 마포는 경사와 위사의 굵기에 따라 升數가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경사의 굵기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³¹⁾ 예를 들면, 3년 복상의 참취에는 3~3.5새³²⁾의 아주 거친 생포를 사용하고 밀단을 마무리하지 않았으며, 1년의 제취에는 그보다 덜 거친 4~6새의 생포로 밀단을 호아서 지었다. 부대물인 首經, 腰紵에서도 새의 굵기에 차이를 두었다. 즉, 상복의 착용기간, 소재의 升數, 상복짓는 방법 등은 親等秩序를 상징하는 방법이다.

5. 상복구성에 표현된 상징 - 우주관

유교적 영향하에서 만들어진 상복은 일반 옷과는 달리 그 구성법이나 바느질법도 특이하지만 형태 또한 특이하다. 상복에서 나타내고자 한 상징성을 구성을 통해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凹로 마름질되는 辟領(깃)과 凸로 마름질되는 加領(덧깃), 어깨 바대에 해당되는 適, 허리선에 燕尾형태로 붙이는 衿, 상복 등판에 붙이는 負板, 앞가슴 한쪽 또는 양쪽에 붙이는 눈물받이가 그것이다. 이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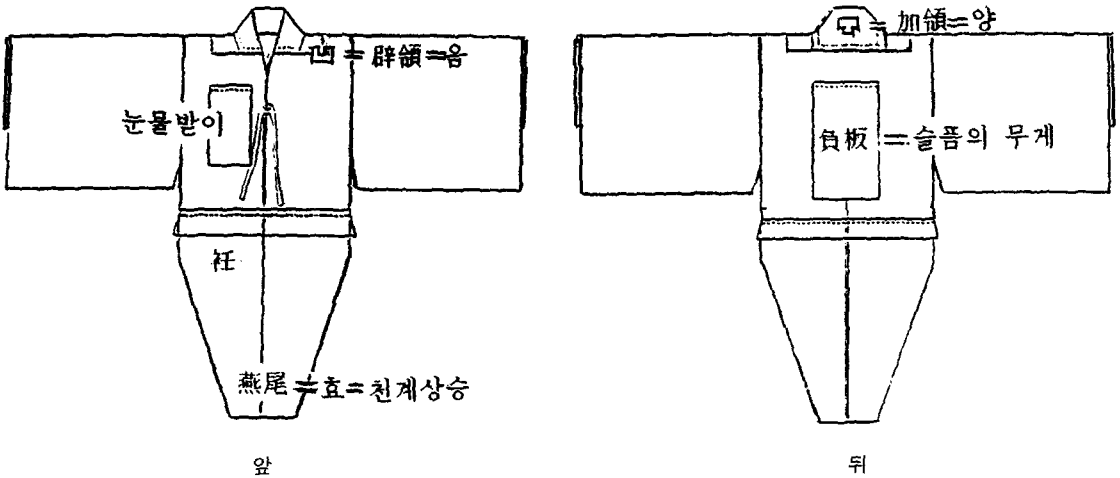
대는 <주자가례>나 <사례편람>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가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 특히 燕尾형태에서는 아주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형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주자가례>를 만든 중국의 종교 신앙적 우주관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사회의 행위 속에서 유교의 역할은 인간 역사상 경이로운 현상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조상숭배가 중국인의 종교적 욕구를 실제로 만족시켰거나 아니면 불교가 적절한 시기에 채택되었거나 또는 道敎가 우주의 신비감을 제공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³³⁾

중국의 옛 전설이나 민간전승에는 “呪術的 飛翔” 사례가 무궁무진하다. 중국의 年代記에 따르면 황제 堯의 딸 女英과 娥皇이 舜에게 “새처럼 하늘을 나는” 기술을 가르쳐주었다고 한다.³⁴⁾ 이러한 주술적 비행의 기원이 샤마니즘이라는 암시는 중국문헌에 얼마든지 나온다. “天界飛翔”이 중국에서는 “새의 깃으로 그는 모습을 바꾸고 불사신처럼 날아올라갔다”고 표현한다. 羽士 혹은 羽客이라는 표현은 道敎의 사제, 즉 道士를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는 이 깃털이 샤만적 비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상징이라고 알고 있다.³⁵⁾

중국의 샤마니즘에 따르면 상고시대의 수세기 동안 巫는 중국의 사제였고 巫俗은 유교와 국가종교가 우위를 차지하게되기 전시대의 종교생활을 지배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교는 요가나 불교보다 훨씬 많은 고대의 접신 기술을 흡수하고 있으며,³⁶⁾ 그래서 완벽한 군주는 반드시 呪力의 소유자였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접신능력”은 정치적 덕행과 마찬가지로 國祖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기 때문이다.³⁷⁾ 도교문헌이나 유교문헌이 이 지배력을 道라고 부르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샤마니즘적 요소는 중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세계도처에서 비슷한 경우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의 샤마니즘이 특히 두드러진 종교현상이었다.

우리나라도 기원전 4세기 한반도북부 중국에 인접한 지역의 거주자들은 무속을 종교로 받들고 살았고³⁸⁾ 고대신라의 종교이기도 했다. 가야나 신라의



앞 뒤
 <그림1> 상복저고리 구성과 상징성(조선시대궁중복식, 유물번호2642참조)

금관은 그러한 고대신앙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샤만이라는 말은 퉁구스어 샤만(Saman)에서부터 러시아어를 통하여 유래한 말이다.³⁹⁾

시베리아 샤만이 입는 의상이 지닌 鳥形의 상징체계는 주술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하늘을 난다는 것은 아는 것이 많은 상태, 즉 秘意나 형이상학적 진리를 이해하는 상태인 것으로, 안다는 것은 날개를 갖는 것이며 따라서 새를 영혼의 안내자로 보는 관념⁴⁰⁾ 때문에 샤만들은 衣裳 자체의 구조를 되도록 새 모양과 비슷하게 꾸미려고 했는데 새 모양을 흉내낸 의상은 알타이인의 거주지역 전체에 퍼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럽이나 아시아의 선사시대 유물에서도 宇宙樹 가지에 앉은 두 마리 새 그림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우주론적 가치를 지니는 이런 그림의 새는 祖上-靈魂을 상징한 듯이 보인다⁴¹⁾고 했다. 따라서 喪服의 형태에서 燕尾象은 주술적 의미로서 조상-영혼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깃비둘기는 중국 고대신화에서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한 새⁴²⁾로 표현되고 있어 효성으로써 喪主가 샤만의 역할을 대신하여 死者의 저승으로의 천계상승 인도를 의미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凹형태의 깃과 凸형태의 뒷깃은 중국 디자인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 하나의 원리, 즉 天地陰陽이라는 相剋적인 조화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음양은 완전성을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는 相剋하는 힘⁴³⁾이고 開合의 원리로 이 양자의 상호작용은 삶

근원-天地, 男女, 生死이다.⁴⁴⁾ 즉 “윗 부분은 아랫부분을 받아드려야 하고 아랫부분은 윗 부분을 받아드려야 한다. 그래야 각 부분은 서로 쫓아 버리는 외양이 아니라 서로 반응하는 외양”이 될 것이라는 開合의 원리를 적용하였는데 이것은 道를 구성하는 陰陽으로 의미되는 것이다.⁴⁵⁾ 이로 미루어 볼 때 상복 구성에 표현된 우주관은 燕尾象으로, 死者의 天界上昇 인도를 상징하는 새, 즉 효를 상징하는 제비의 꼬리 형상을 본떠 구성했는데 이는 과거 샤만들이 새를 영혼의 안내자로 본 주술적 방법이며 또한 도교의 사체를 뜻하는 羽士, 또는 道士를 가리키는 말로 이 새의 형상을 본뜬 상복을 상주가 입는 것은 샤만의 역할을 대신하여 死者의 저승인도를 대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凹와 凸의 절묘한 깃 구성을 통해서 天地陰陽의 道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복은 유교의 독자적 사상이 창출해 낸 것이라고 보기 보다 원시종교인 샤머니즘과 도교의 사상도 복합되어 상징적 형태를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 結 論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상복은 여러 가지 의미의 상징성, 즉 死者에 대한 유교의 조상숭배사상이 우선하여 표현되고 있지만 조상숭배를 상복에 표현

하는 방법에서는 유교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원시종교 사면과 도교의 道도 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복구성에는 내외의 구별이 있었고 애통함을 상징한 장식이 있었으며 혈연관계의 친소를 소재의 밀도로 표현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복구성에 표현된 우주관은 死者의 天界上昇 인도를 상징하는 새, 즉 효를 상징하는 제비의 꼬리 형상을 본떠 구성했는데 이는 과거 사면들이 새를 영혼의 안내자로 본 주술적 방법이며 또한 도교의 사제를 뜻하는 羽上, 또는 道士를 가리키는 말로 이 새의 형상을 본뜬 상복을 상주가 입는 것은 사면의 역할을 대신하여 死者의 저승인도를 대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凹와 凸의 절묘한 것 구성을 통해서 天地 陰陽의 道를 상징하였는데 이와 같이 상복에는 도교의 道가 내재되어 있는가 하면 유교의 가족관계가 있고 조상숭배를 위한 원시종교 사면의 상징적 衣裳體系가 상복구성에 표현되어 있음이다. 즉, 구성에서는 새의 형태를 통해서 사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한다는 샤머니즘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상복의 마름질에서는 陰陽과 開合의 相懸을 통해서 天地이치의 조화를 나타냈으며, 바느질방법으로는 남녀를, 五服의 착용기간은 가족관계의 親等秩序에 따른 哀悼其間을, 그리고 옷감조직의 성긴 정도로는 친등에 따른 슬픔의 정도를 나타냈고, 슬픔의 무게와 양은 負板과 눈물받이로서 조상에 대한 효를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최상의 禮에 대한 조상의 음덕을 받고자하는 후손의 염원도 내포되었으리라고 본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상복에는 가족관계의 결속과 조상에 대한 효가 크게 작용하면서 유교이전의 巫俗的인 방법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상복은 儒敎의 영향뿐만이 아니고 道敎의 영향이 혼합되어 상징적 구성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벌의 의복에 이렇듯 다양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복은 언어 이상의 의미 있는 호소력을 나타내고 있어 생활 속의 문화로서 전승의 가치를 재고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김두현 (1936). 오복제도의 연구. 진단학보, 권 5.
- 2) 정명자 (1975). 오복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3) 최기복 (1980). 유교의 상복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조우현 (1989). 조선시대상복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조우현 (1994). 유교상복의 조직원리에 대한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18(4).
- 6) 이은영 (2000). 복식의장학. 서울: 교문사, p. 25.
- 7) David Fontana 저, 최승자 역 (2001). 상징의 비밀. 서울: 문학동네, p. 8.
- 8) 위의 책, p. 8.
- 9) Georges Nataf 저, 김정란 역 (1987). 상징. 기호. 표식. 서울: 열화당 미술선집 59, p. 9.
- 10) 김원룡 (1998). 한국미의 탐구. 서울: 열화당, p. 52.
- 11) 최근덕 (1986). 조상숭배와 의례. 한국인류학회지, 제 18집, p. 178 재인용.
- 12) 최길성 (1983). 한국조상숭배의 연구. 한국인류학회지, 제15집, p. 83.
- 13) 변태섭 (1958). 한국고대의 계세사상과 조상숭배신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 3, pp. 55~95.
- 14) 최길성. 앞의 책, p. 88.
- 15) 김규성 (1969). 한국의 고전백선. 신동아 1월호 부록, 사례편람. 동아일보사.
- 16) 장철수 (1973~74). 중국의례가 한국 의례생활에 미친 영향. 한국인류학회지, 제6집, p. 71.
- 17) 威倪備齋叢話, 권 8.
- 18) 조우현 (1989).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1.
- 19) 위의 책, p. 14.
- 20) 정옥임 (2002). 天·地·人 우리웃구성. 서울: 수학사, p. 242.
- 21) 백영자 (1998). 한국의복식. 서울: 경춘사, p. 388.
- 22)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1). 조선시대 궁중복식. 서울: 고려서적주식회사, p. 104.
- 23) 정옥임 (2002). 앞의 책, p. 242.
- 24) 송영배 (1998). 인간과 자연. 서울: 철학과 현실사, p. 21.
- 25) 위의 책, pp. 21~22.
- 26) 금장태 (1986). 조상숭배의 유교적 근거와 의미. 한국인류학회지, 제18집, p. 76.
- 27) 위의 책, p. 77.
- 28) 조우현 (1989).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9.

- 29) 최근덕 (1986). 앞의 책, p. 179.
- 30) 김성련 (2000). *피복재료학*. 서울: 교문사, p. 289.
- 31) 석주선 (1982). *한국복식사*. 서울: 보진제, p. 167.
- 32) 조우현 (1989). 앞의 책, p. 33.
- 33) Geoge Rowley 저, 김기수 역 (1980). *동양화의 원리*. 서울: 중앙일보사간, p. 105.
- 34) Mircea Eliade 저, 이윤기 역 (2001). *샤머니즘*. 서울: 까치, p. 389.
- 35) 위의 책, p. 391.
- 36) 위의 책, p. 392.
- 37) 위의 책, p. 389.
- 38) Jon Carter Covell 저, 김유경 역 (1999). *한국문화의 뿌리를 찾아*. 서울: 학교재, p. 25.
- 39) Mircea Eliade 저, 이윤기 역 (2001). 앞의 책, p. 24.
- 40) 위의 책, p. 411.
- 41) 위의 책, p. 412.
- 42) 김희영 편역 (2001). *중국의 고대신화*. 서울: 육문사, p. 106.
- 43) Geoge Rowley 저, 김기수 역 (1980). 앞의 책, p. 165.
- 44) 위의 책, p. 165.
- 45) 위의 책, p. 165.